

승속 혼연일체 대승불교운동 전개

한국불교-종단순례



대한불교 관음종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등 유사명칭 사용 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기성 종단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난 7월 11일자로 종교법인 인·허가 관련 협조를 정부, 광역시, 도청 등 자치 단체에 요청하여 전통불교의 위상에 걸맞는 종단설립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종단불교의 특성을 지닌 한국불교 종단 가운데 한국불교의 공식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25개를 대상으로 중지, 중풍, 교세 등을 살펴, 종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정보 포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열독을 바랍니다.

■후원=(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현황

대한불교관음종은 태허 홍선(太虛 洪宣) 대종사에 의해 1965년 불입종이라는 종명으로 창종했다. 57년 법화경의 보살실천사상을 중심으로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한 지 8년이 만의 일이었다. 관음종이라는 종명은 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자 법인으로 개편하면서 사용하게 됐다.

관음종은 600여 소속 사찰과 1백만 신도를 거느린 불교 주요종단이다.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의 법화사상

들을 가르치며 포교에 전력해 관음종을 불교 주요종단으로 우뚝 세웠다. 또한 일찍이 국제 불교교류에 능숙한 불교진흥회 고문으로서 역할을 다했으며, 청(소)년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마하불교학생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온 국민에게 법화사상과 관음종의 포교에 힘쓰던 스님은 79년 6월 세수 74세 법랍 50년의 생애를 마치고 묘각사에서 열반했다.

관음종은 서울 종로구 송인동의 총무원에 비롯해 원로회의, 호법원, 중앙총회, 교육원, 포교원의 조직을 거느리고, 총무원 산하에 총무부, 교무부, 재무부, 사회부, 갑



◇6월7일 대불보전을 낙성, 총본산으로 사격을 완벽히 묘각사전경.



◇묘각사 대불보전 내부모습. 금어 만봉스님이 직접 제작한 후불탱화등 보물급 성보로 가득하다.

에 지상 3층 연건평 500여평 규모를 자랑하는 웅장한 모습으로 총본산의 사격을 갖췄다. 대불보전 내 후불탱화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된 금어 만봉스님의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북한 만수대에서 자수로 제작한 수월관음도가 자리해 눈길을 끈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낙성식에서 “지금까지 합심하여 복원 불사를 이루었듯이 총본산 복원을 종단 발전의 전기로 삼아, 더욱 더 애중심을 발휘하고 신심을 증진시켜

신행·기도 공간으로 제공해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계 획이다. 또한 종단의 총무원과 각종 중앙중무기관을 입주시키는 한편 승려연수교육과 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의 위상을 되찾아 총본산으로서의 기능도 되살려 나갈 방침이다.

총무원장 홍파스님은 “묘각사 복원불사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 사찰을 복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음종과 한국불교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종단의 전법도량이면서, 아울러 불교와 종단 발전을 이끌 도량으로 가꿔 나가기 위해 모든 종도들과 불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찰수 600여개 · 신도 1백만의 거대종단 65년 불입종 창종, 88년 관음종으로 개명

원로회의 · 호법원 · 중앙총회 · 교육원 · 포교원 갖춰

을 정해(定憲) 경주소서 채택하여 관세음보살의 제세원력을 구현할 것을 종지로 봉대하고 있다. 특히 관음종 개산조인 태허 홍선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현대사에 우뚝 선 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태허 홍선 대종사는 1905년 출생해 28년 경상예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6세 때인 30년 순천 선암사에서 경운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전국 사찰의 제방선원과 중국 산서성 사찰을 돌며 구법참구하여 고승들의 가르침을 사사했으며, 현재 관음종 총본산인 묘각사를 창건했다. 57년에는 종단의 모태가 된 일승불교현정회를 창립, 제자

찰부를 두어 종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조직인 시도총무원 신도회, 각 사원신도회를 총괄하는 중앙신도회를 두어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음종은 6월7일 3천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총본산 묘각사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는 1930년 5월 태허 홍선 대종사가 창건, 두차례의 중창을 거치며 법화사상을 펼치는 도량으로 자리잡았다. 창건 이래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과 대중불교 운동을 지향한 법화신앙의 중심사찰의 역할을 다했으며, 도심에 위치한 서울시민의 안심일명의 귀의처로서의 역할을 다한 관음성지로 거듭났다.

97년 2월 화재로 법당과 범종각, 요사가

30년 태허 대종사 창건...관음종 발원지

7년 불사 대불보전·원통보전·선방 낙성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던 총본산 묘각사는 관음종 모든 종도들과 불자들의 관심 어린 후원으로 7년여의 불사 끝에 지난 6월 7일 대불보전과 원통보전, 시민선방을 낙성했다. 새롭게 복원된 묘각사는 대지 530여평

불교발전을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했다.

이에 따라 관음종은 시민선방, 강원을 마련해 불자와 시민들에게 묘각사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청년불자들의



◇중앙총회 의장 법륜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인천 흥륜사.



◇복원불사에 기여한 법성화 보살의 공덕비.

재단법인 대한불교 관음종
www.kwanum.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178-3
(02)763-0054, 763-3345

시민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것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서울 종로구 송인동 낙산에 소재한 총본산 묘각사를 바라보는 홍파스님(총무원장·사진)의 감회는 남달랐다. 화재로 사찰의 대부분이 소실된 지 7년 만에 다

을 염원하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1988년 재단법인으로 자리 잡게 된 관음종은 묘각사를 중심으로 ‘불교이화운동’과 ‘불교사회화운동’ 등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다 97년 2월 총본산이던 묘각사가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잠시 주춤했다.

화재 당시를 떠올리던 홍파스님은 “관음종의 스님들은 묘각사를 정점으로 포교활동을 해왔는데 갑작스런 화재로 대응전과 종각 등이 소실되면서 포교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 후 7년간의 재건 노력 끝에 총본산 묘각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7월 열린 낙성식에는 불교종단협의회

불교 사회·대중화 운동 새 차원에서 추진

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천5백여명이 참석해 묘각사의 재건립을 축하했다.

홍파스님은 “열린 시대를 맞아 사찰도 스님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한다”며 “법당과 강당 등 100평 남짓한 공간에 ‘시민선방’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스님은 또 “대중이 찾아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불교사회운동, 불교대중화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각도의 법화 화엄 사상의 불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종단발전 기반조성에 힘쓸터

관음종 중앙총회의장 법륜스님



“중앙총회는 종단의 교육체계의 위계 질서를 바로 잡고 종풍을 선양하기 위해 종도들의 민의를 하나로 모으고 총무원의 각종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교계 중심 종단으로 우뚝 서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중앙총회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관음종 중앙총회 의장 법륜스님(인천 흥륜사·사진)은 종단 발전의 기반 조성에 중앙총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도와 불자들의 뜻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강조했다.

법륜스님은 7년여의 불사 끝에 지난 6월 7일 낙성한 총본산 묘각사를 이같은 의지를 실현하는 중심도량으로 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낙성식이 끝난 뒤 법륜스님은 “종도들과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복원불사를 추진한 결과 묘각사가 총본산, 법화신

앙의 중심사찰로서의 사격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묘각사 복원을 계기로 종도들이 종단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중심으로 종단 중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님은 “원로회장, 총무원장 등 7인조 종정추대위원회를 구성해 세 종정을 추대해 총본산과 큰 어른인 종정을 중심으로 종단과 불교의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륜스님은 대중속으로 파고들어 가는 종단, 사회에 참여하는 종단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심에 중앙총회가 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스님은 “복지예산을 늘리는 등 종단에서도 사회 속에 함께 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복지예산 확대 등 시민사회에 동참

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륜스님은 89년 초대 포교원장을 거쳐 90년 중앙총회의장에 취임, 종풍 선양에 힘써 오는 한편 40여년간 인천지역에서 포교와 복지사업에 매진해 종단의 위상을 높여왔다. 특히 인천시불교연합회장, 인천지방경찰청 경순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을 초월한 포교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명칭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딱적도 핵폐기장 백자화운동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수인선 전철 조기착공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인천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아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